

명분 없는 전쟁에 반기를 들다

김충선(金忠善)은 원래 일본인으로 이름은 '사야가'였다. 그의 호를 딴 《모하당문집》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공부에 심취해 있었고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흡수했으며 일본의 비속한 풍속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 그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왜군의 장수가 됐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는 근거를 납득할 수 없는데다 지금까지 도움받아온 스승의 나라를 치러 일어섰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 전쟁 발발 직후 적장인 경상도병마절도사 박진(朴晉)에게 투항 의사를 밝혔다.

사야가는 임진왜란 당시 22세의 나이로 왜군 3천 명을 통솔하던 고위급 장수였다. 그런 그가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후 부하들에게 악탈을 금하는 군령을 내리고 이틀 뒤 침략의 뜻이 없음을 알리는 효유서(曉諭書)를 백성들에게 돌렸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이 글을 보고 안심하고 직업을 지킬 것이며 절대로 동요하거나 흠어지지 말라.”

조선에서는 투항한 왜병들을 전투 중에 잡은 포로와 달리 '항왜(降倭)'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요토미가 일으킨 전쟁을 모두가 찬성하고 동조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항왜는 무려 1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사야가였다. 선봉에 섰던 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어기고 조선에 투항했다는 것은 초기 전황이 불리하던 조선으로서 용기백배할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일급 조총 기술자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혈통이 뒤섞여 발전을 이뤄왔다. 정말 놀랄 것은 고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국적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용광로처럼 서로 한데 어울려 한민족의 가치관과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들 가운데 한반도에 들어와 놀라운 업적을 보여준 몇 명의 영웅들이 존재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김충선은 임진왜란의 국난 극복에 기여했던 위대한 영웅이다.

옳다고 믿는 것에 생명 건 용기와 충성심
사야가는 귀화 후 조선에 일본식 조총 및 화약 제조법과 '철포대(일본에서 조총부대를 일컫던 이름)' 전술을 전수했다. 정신없이 왜군에 밀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조총의 핵심기술을 가진 왜장이 투항한 것은 조선에는 하늘이 도운 축복이었다.

조선에서는 그가 귀화하면서부터 왜군의 조총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책을 내놓게 됐다. 조총은 다시 장전하고 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수를 3열로 세워 한 줄이 쏘고 난 후 앞으면 그 뒷줄이 쏘고 나서 앉고, 그러면 세 번째 줄이 또 총을 쏘는 식으로 연발사격이 가능한 전법을 개발했다.

물론 그 사이에 앓은 병사들은 장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조선군이 무너진 최전선 전술이었다. 그러나 사야가의 등장 이후 조선은 왜군의 조총사격을 견제하고 그 빈틈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야가의 전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선조는 그의 투항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행재소에서 그를 맞아 무예를 시험해보고는 곧바로 벼슬을 내려주고 전장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는 영남지방에서 부하 3천을 이끌고 무공을 세웠으며 아군의 병기가 열악함을 보고 경상도 병영에 상서해 각도 각진에 조총과 사용법을 교수하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같은 해 12월 종2품 가선대부 벼슬을 받았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잇따라 공을 세웠으며 도원수 권율, 어사 한준겸이 주청해 한국식 성명을 하사받았는데 이름을 김충선이라 했다.

그는 또 병사 김응서와 후방을 지켰고 정유

재란이 일어나자 김응서와 명나라의 마귀제독 휘하로 들어가 울산에서 싸웠다. 이때 명군의 기강이 해이해 전과를 올리지 못하자 그 책임이 김응서에게 떨어져 군문에서 참수당하게 됐다. 김충선이 이를 적극 말리고 목숨을 걸고 간하여 김응서의 죽음을 막았다.

위기를 맞아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정신
그는 조선에서 상당한 대우와 봉록을 받아 정치·경제적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러나 그가 돋보이는 것은 이런 체면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위기를 걱정한 충성심이었다. 그는 조선군을 지휘하는 리더로서 지도자의 용기와 절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숏선수범해 보여준 인물이었다.

김충선은 임진왜란을 치르고 30세 되던 해에 진주목사 장춘점의 딸과 혼인하여 경상도의 한 골짜기 우록동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으나 여진(훗날 청나라)의 침입으로 변경이 소란해지자, 자청해서 35세부터 43세가 넘을 때까지의 장년기를 군무에 바쳤다. 왕이 어여뻐 여겨 교지에 친필로 써서 그를 칭찬할 정도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김충선은 소명을 기다리지 않고 광주 쌍령 싸움에 출전해 적군 5백여 명의 목을 베었으나, 임금이 항복하자 나라의 장래를 심히 걱정하며 통곡한 후 대구의 우록동으로 돌아가 후학을 가르치고 가훈·향약등을 마련해 향리 교화에 힘썼다.

그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의 나라의 군신으로서 차마 어찌 개 같은 오랑캐 앞에 무릎을 굽히단 말인가”라고 통곡한 조선의 충신이

었다.

모국을 그리워하며 문장으로 이름 남겨

남풍이 때때로 불 제
고향을 생각하니
조상의 무덤은 평안한가
일곱 형제는 무사한가
구름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봄풀을 보고 솟아오르는 생각이
어느 때인들 없을소냐
아마도
세상에 흥한 팔자는
나뿐인가 하노라

지원하여 조선 사람이 됐고 전장에서 자신의 모국과 싸웠지만 일본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가 남긴 시문은 한글과 한문으로 나뉘어 전해지며 높은 문학성을 갖춘 글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마을에 가면 집성촌이 있는데, 임금이 성을 내린 사성이라 해서 일부러 '사성 김해 김씨'라 부른다. 현재 살고 있는 2백여 호 가운데 50여 호가 이 가문이며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후손들은 모두 4천 명 가량 된다고 한다. 4백 년간 많은 후손을 퍼뜨려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김충선이 평화를 사랑하고 유학의 사상을 기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4백 년 동안 우록동이 한 차례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자랑한다. 이는 김충선의 위대한 리더십과 도전정신이 그대로 이 마을에 전수됐기 때문이 아닐까? ■

그가 돋보이는 점은 이런 체면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충성심이었다. 그는 조선군을 지휘하는 리더로서 지도자의 용기와 절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숏선수범해 보여준 인물이었다.



박 기 현

《악인의 리더십》 저자, 작가
posthara@paran.com